

6. 세 절의 수수께끼⁷⁾

제주도에는 절의 역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

첫째는 제주도 최고(最古)의 절로 알려진 존자암(尊者庵)이 언제 창건되었는가, 그리고 그 때의 암자터는 어디였는가? 둘째는 법화사(法華寺)는 언제 창건되었으며 원나라의 피난궁(避難宮) 얘기는 맞는 말인가? 셋째는 안봉려관(安蓬廬觀) 스님이 관음사(觀音寺)를 세운 것은 창건인가 아니면 옛 관음사를 재건한 것인가?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는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가 탐몰라주(耽沒羅洲)에 살게 된 기록이 나타난다. 이 ‘탐몰라주’⁸⁾를 저자는 지금의 제주가 아닌가 추정된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7) 『한라일보』(삼각봉), 2005. 12. 08 (목), 제주문화원장.

8) 신문에는 ‘탐몰라주’라고 오기되어 있다. ‘탐몰라주’로 바로 잡음.

이 주석 때문에 그때 발타라존자가 세운 암자라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제주도에는 이미 기원전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학계에서는 기원4세기로 보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에 각각 다른 루트를 타고 들어오며 신라에는 고구려루트를 타고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에 제주도에 탐라 원주족이 살았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이 불교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나 연산군 때 제주에 유배되었던 홍유손(洪裕孫)의 『소총유고』⁹⁾에 삼성이 나라를 세운 초기부터 있었던 암자로 전해져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록 등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가장 오랜 절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때 절터가 어디였는가? 최근에 복원돼 있는 불래오름이 ‘불래(佛來)오름’이라는 전설과 함께 처음부터 이곳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불래오름’ 설은 적어도 18세기 이전의 고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필자가 고로들로부터 들은 것은 영실 삼존암(三尊巖) 바위 아래 있는 절터로 듣고 있다.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불우조(佛宇條)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영실 수행동에 있던 절이 지금은 서쪽 십리 밖 오름으로 옮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법화사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에 가려진 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에게는 13세기 원나라에 의해서 창건된 절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9세기에 장보고(張保臯)가 창건한 절로

9) 신문에는 『조총유고』라고 오기되어 있다. 『소총유고(條叢遺稿)』로 바로 잡음.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굴조사 과정에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그 명문을 풀어보면 ‘1269년(원종 10)중창기공, 1279년(충렬왕 5)완공’이라는 기문이었다. 이 명문기와의 출현으로 13세기에 법화사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중창이라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절은 언제 창건되었는가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15세기 초 태종실록에는 법화사에 사노비(私奴婢)가 2백 80명이나 있었던 기록이 나타나고 원의 양장(良匠)이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타난다. 또 『탐라지』에는 “절터와 나한전(羅漢殿)터의 주춧돌과 섬돌 등을 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쓰고 있어 전성시에는 굉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원나라가 왜 그 거창한 사원을 제주도 에 세웠는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관음사는 어떻게 창건되는가? 지금의 절은 1908년 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5년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나 여염집 아낙이었던 봉려관이 어느 날 출가, 관음사를 창건한데는 기구한 사연과 기적 같은 전설이 전해져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불우조(濟州牧佛宇條)를 보면 조천포(朝天浦)에 관음사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이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이미 관음사는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의 관음사는 전설처럼 봉려관이 독창한 것인가 아니면 옛 관음사를 재건한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관음사는 거창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삼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음사 회주 중원스님

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절을 봉려관 스님이 재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참에 봉려관 스님의 비밀도 풀고 모든 절의 비밀도 풀렸으면 한다.

관음사는 제주도에 오래 끊겼던 불교의 맥을 다시 일으킨 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문화를 일으키는 도량이 되겠다는 중원스님의 원대한 포부가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한다.